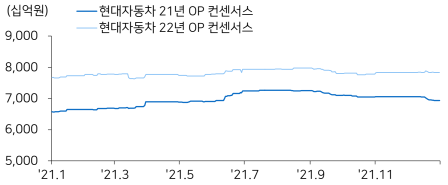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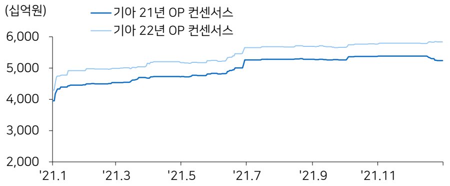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2. 1. 24 (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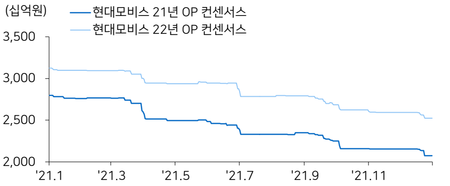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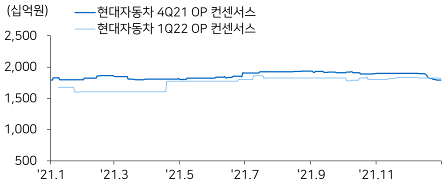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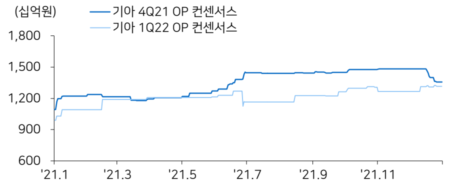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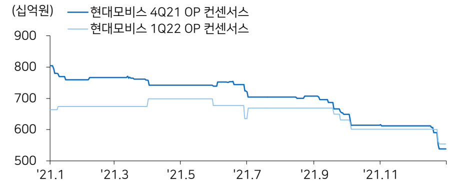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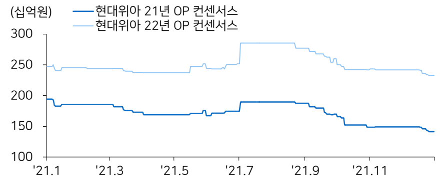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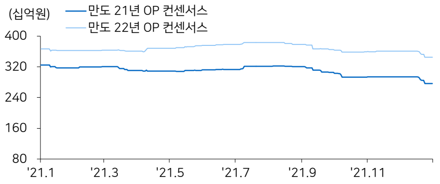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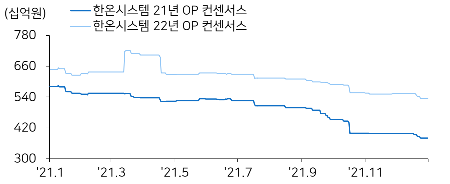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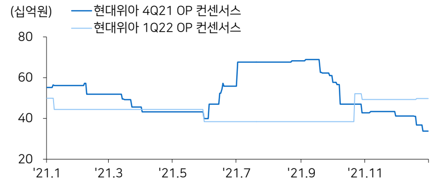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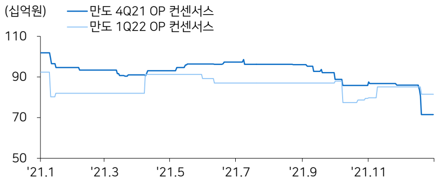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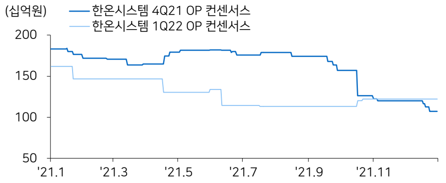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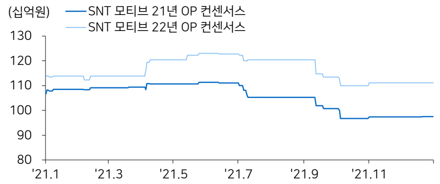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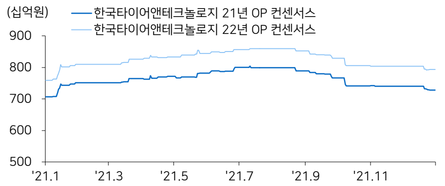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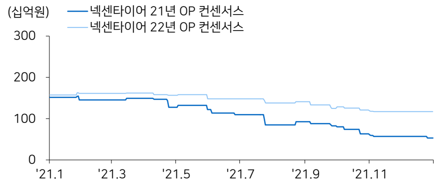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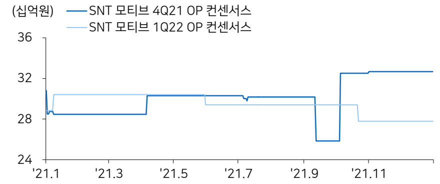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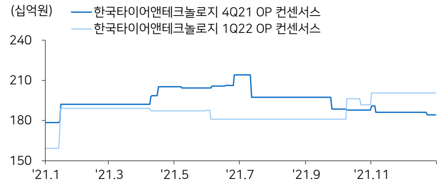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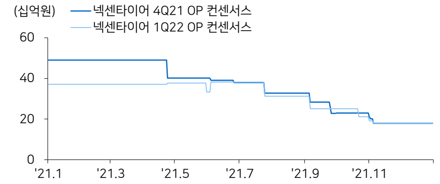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GM · LG엔솔, 7.7兆 투자해 美 배터리 공장 2곳 설립 (조선일보)

미국 GM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에 65억달러를 투자해 배터리 생산 공장 두 곳을 설립할 계획. 장소는 미시간 주 랜싱과 오라이언이며, 미시간전략기금은 오는 25일 얼티엄셀즈 투자계획 지원방안 의결 예정.
https://bit.ly/3GVM5Ex

샤오미, 전기차 시장 뛰어들자…中지리차도 '파격 결정', 무슨 일? (한국경제)

22일 중국 정보기술(IT) 매체 '36크립톤(36Krypton)'은' 지리(Geely)'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메이주(Meizu)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리 쉬푸' 길리홀딩스 회장은 '자동차 시장에서도 휴대전화처럼 동일한 기능 수행을 원한다'고 언급함.
https://bit.ly/3rHKUCe

EV subscription company Autonomy launches Tesla Model 3 rental fleet (Teslarati)

차량 구독 스타트업 'Autonomy'는 Tesla Model 3 구독 프로그램을 출시함. 고객이 결제 후 10분 이내 차량을 주문/픽업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 기간 후 월간 계약 구조를 가짐.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곧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
https://bit.ly/3lyTgmf

Geely, Renault formally agree on cooperation in South Korea (Reuters)

중국의 Geely 자동차와 프랑스의 Relault가 한국에서 판매할 HEV와 가솔린차량을 공동설계 및 생산하기로 공식 합의함. Geely의 아키텍처를 이용한 HEV 신차는 부산의 르노삼성 공장에서 '24년부터 생산 시작 예정.
https://reut.rs/3nSsmhl

"車업계, 미래차 통합OS 개발 경쟁…2024년 전후가 골든타임"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E/E 아키텍처가 분산형에서 중앙집중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통합형 OS 개발 방식은 안드로이드향(스텔란티스, GM 등)과 자체 OS 개발(테슬라, VW, 현대차 등)로 나뉜다는 연구자료를 발간.
https://bit.ly/341jZsO

정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자신문)

정부가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신규 지원 국책과제 사업을 공고함. 완성차 제조사, 자동차 부품사, 소프트웨어(SW) 개발사, 통신사 등 민간기업과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qVVk24

Sony seeks new partners for transformative EV project (Reuters)

Sony 모빌리티 총괄 '이즈미 가와니시'는 'EV에 다가올 변화가 스마트폰의 진화와 유사하다'고 언급함. 또한 Sony는 자동차를 운송 기계에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3lwq4ws

Lamborghini begins farewell to pure ICE vehicles this year (Automotive News)

VW의 람보르기니는 '24년까지 라인업을 전기화하기 위해 '23년 첫 PHEV 모델을 출시할 예정. 그러나 완전 전기 모델은 최소 향후 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힘. 람보르기니는 작년 yoy +13% 증가한 8,405대를 판매하여 호실적 기록.
https://bit.ly/3FUK3m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